

# 책과 세계는 통한다

서울국제도서전, 6월1일부터 코엑스에서 열려

2007 서울국제도서전이 오는 6월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 태평양홀, 인도양홀에서 2007서울국제도서전 조직위원회 주최, 문화관광부,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1995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해 올해로 13회째를 맞게 된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판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국민 독서력 증대를 통한 국가 지식 기반 확충, 출판 및 독서 교류 활성화, 출판 문화, 국민적 인식 제고라는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발전해왔다.

2007서울국제도서전조직위원회는 '세계, 책으로 통하다', '책, 서울국제도서전으로 통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책 속에 세계의 모든 지식, 지혜가 담겨 있고, 책을 통해 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탄생되는 책들을 둘러보면서 책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높여주며, 또한 이를 통해서 책 읽는 문화, 책을 가까이 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도서전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들이 책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전과 세미나들도 준비된다.

## 전시회의 꽃, 다양한 특별기획전 준비돼

지난해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작가의 방'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국내 대표작가들의 작업실을 공개한 바 있다. 올해는 출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한국 출판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자리를 가진다. 그동안 출판계의 중심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온 출협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출판의 전망을 내다볼 수 있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오디오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자리를 가진다. 오디오북은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사업으로 관련업체의 참여로 특별전시를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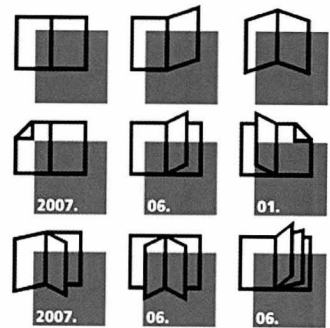
또한 '2006-2007 독자의 선택, 비평가의 선택'이라는 코너에서는 한 해 동안 독자와 비평가들에게 주목받은 도서를 전시하여 그 해 출판 경향을 파악, 독자들의 선택과 비평가들의 선택을 비교해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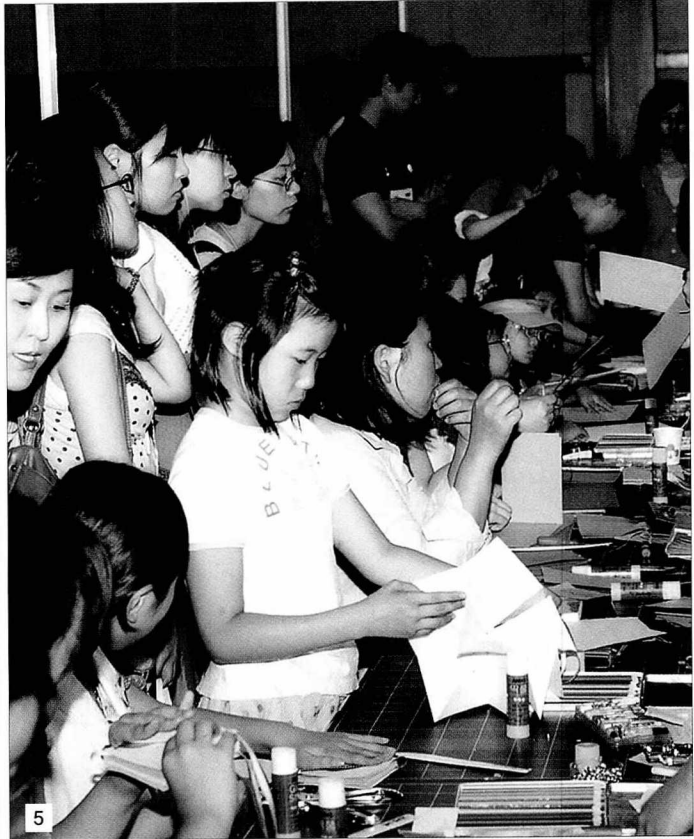


- 1 2007 서울국제도서전 CI
- 2 지난 2006서울국제도서전에 부스를 마련한 지도인쇄전문업체 성지문화사
- 3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는 홍우동회장과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 4 작가와의 대화에 나선 공지영씨
- 5 아이들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 6 2006서울국제도서전 모습

## 세계, 책으로 통하다

1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한다.

이와함께 대한인쇄문화협회와 청주시직지세계화추진단이 공동으로 '직지 및 고인쇄특별전' 도 마련하며, '제4회 서울국제북아트전' 도 열려 아트북을 관람하고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북아트전에는 2007 서울국제북아트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새로운 출판예술분야인 북아트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진다. 또한 어린이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들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 다양한 채널로 서울국제도서전 홍보해

서울국제도서전은 적극적인 홍보로 더욱 눈길을 끈다. 책과 도서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존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했다. 네이버포털에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노출되는가하면, 네이버 블로그와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통해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또한 '2007 서울국제도서전' 사이트(www.sibf.or.kr/2007)에서는 도서전 관람을 돕기 위해서 e-브로셔 등을 제공하고 있어 참관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김정상 기자 sang@print.or.kr

